

새 출발

나 운 영

공자님 말씀에 '조문도 석사가의朝聞道 夕死可矣'란 말이 있다. '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는다 해도 한이 없다.'라는 뜻이다. 이것은 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. 새해, 새 아침에 나는 재출발이란 글을 통해서 '새출발은 1백80도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니 20·30대라면 새출발을 해 볼 만하겠지만 40·50대에 와서 새출발을 한다는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 보아야만 할 문제가 아닐까...'라고 했다.

그러나 '철들자 망령 난다.'라는 격으로 만약에 늦게라도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때부터라도 새 출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. 화가가 몇 달을 두고 그린 그림을 하루아침에 다 지워 버리고 다시 그리는 일이나, 작곡가가 거의 완성 단계에 놓인 곡을 불살라 버리는 예를 우리는 종종 보고 듣게 되는데 나는 그 과단성보다도 예술가로서의 양심을 더 높이 사고 싶다.

범인들에게는 가령 그런 양심이 있다 해도 용기가 없기 때문에 — 그릇된 것을 뻔히 잘 알면서도 — 그런대로 밀고 나가 버리거나,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닐까?

벌써 새해의 1월도 저물어간다. 조문도 석사가의朝聞道 夕死可矣라는 글을 다시 음미해 보면서 나 자신이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련다. 이는 절대로 회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성한다는 뜻에서이다. 흔히 명사들의 회고록을 읽어 보면 자기의 성공담이나 장점만을 자랑삼아 늘어놓는 것을 보기 쉬운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회고록이라고 말할 수 없다.

이제 나는 나의 과거를 그저 회고하며 자위하려 들지 않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—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— 재출발 아닌 <새출발>을 하여 거듭나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보는 것이다. 예술가의 생애는 본래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...

<동아일보 1977.1.??>